

buddhanews.com

#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릅니다

## 25면에서 계속

학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100%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그 병도 어디서 온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계의 50%를 총당할 수 있고, 거기에 물질로써 커버하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의의상의 50%가 종합돼야 우리가 100%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도 다 그렇습니다. 기계 하나를 만들어 보든 그 사람의 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장승을 하나 세워 놔도 장승 세워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혼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고 오면서 보고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거기 투입이 돼서 다신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을 해서 저렇게 모셔 놓으면 그 모습만 봐도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마음을 거기다 다하기 때문에 여래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면 부처님도 안 계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내는 것이 없다면 목석이 될 것이고, 채가 없다면 무효일 것이고, 정신계의 근본이 없다면 바로 또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아주 높은 데고 낮은 데고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에게 '주인공에 관하라' 하니까 자기 빼 놓고 주인공이 개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공이 있다' 하니까 '주인공에다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준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 말씀입니다.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해하자 '당신이 좀 해주시오.' 하면 그것도 기분이지요. 생각 자체가 아주 중요함입니다. 주인공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한 가정을 한데 합쳐서 이끌어 가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듯이, 내 몸속에 있는 일체 생명들과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도 너무 많으니 공생이지 그게 개별적인 자기 생명 하나입니까? 그래서 공생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에, 내 육체세계에 생명이 많이 들어 있는 것만 봐도 공생인데, 나로 인해서 또 혼자 살 수 없는 도리가 외부에 모두 있다 이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듯이, 회장이 있어야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어야 직원이 있듯이 이거는 양면의 한 쪽만 없어도 무효입니다. 아니 됩니다. 작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럼으로써 혼자 먹는 것도 없고 혼자 버는 것도 없고 혼자 쓰는 것도 없고 혼자 하는 것도 없고, 모두가 혼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주인

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를, 공생 공용 공제 공심! 그러니까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면에, 육체 속에 있는 그 많은 생명들이 저 좋은 대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달라고 하니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같이 먹으니까 그 직원들이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자기 수효가 그렇게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먹는 것도 없습니다. 혼자 보는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결부됐으니까 말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간장이니 위장이니 심장이니 모든 게 한데 붙어서 정맥 동맥이 그냥 같이 돌아가는데, 혼자 사는 게 어디 있고 혼자 먹는 게 어디 있고 혼자 일하는 게 어디 있고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자기 일상생활 그대로,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직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육신

도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마음이 진짜 내 모든 생명의 의식들하고 통한다면 자기가 자기 죽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자기 죽이려고 나쁘게 하는 법 보셨습니까? 자기가 살 양으로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 관습에 얽매이게 하지 말고, 또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내가 한 거니까 내가 그렇지 않겠도 할 수 있잖아!' 하고 다시 놓는 것이 자생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말로 하자면 복잡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업적이 돼 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정자 난자에 포함돼 가지고 자기 영혼에 다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세계에서 화가 나고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이 있고,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거나 화가 나서 '에이 그, 죽여 버리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나, 다 그냥 흘려 버리고 어디로 가고 싶거나 하는 것들이 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적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나올 때마다 거기다 다시 업력을 해라 이겁니다. 생명의 의식들은 바로 한 집어, 한 독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마음이 선장이 돼 가지고 잘 다스려 나가면서 제도를 해야 '아래로는 제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래로는 자생중생 자기를 제도하면서 위로는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풀이 아닌, 자기 주인공과 풀이 아닌 도리를 항상 잊지 말 것이니...' 하는 거죠. 이 모두가 습득이 돼서 잘 아신다면 참자유인이 될 겁니다.

진짜 떼려야 뗄 수 없는 자기 뿌리를 믿는 것인데 왜 못 믿습니까. 누가 형상을 믿으셨나, 이름을 믿으셨나, 허공을 믿으셨나, 어느 스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으셨나?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모자라든지 모자라지 않든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바로 자기 뿌리를 믿고 거기에 다 놓으라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체가 없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체가 없는 자기의식들이 너무 많아서, 한마음에 그 의식들이 너무 많습니까. 즉 어느 회사에 직원들이 수 천수만이라면 회장님 한생각에 직원들이 다 움직여 버립니다. 안 그럴까요? 이게 하라는 데 저거 할까요? 그러니까 한 회장님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의의를 하고 모두와 조화롭게 한번 결정을 해 놓는다면 모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내가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거기에 믿고 넘어가야 결정적인 결재를 하는 겁니다.

결재를 해서 내려야 모두 작용을 해 주는 겁니다. 안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 하나 하나에는 우주간 법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즉 말하자면 모든 걸 채근해서 좋은 거는 들리고 나쁜 거는 내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대기권이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도 지구의 대기권과 같이 세포 하나 하나에서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다 채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결정을 내리면 결재가 된 거와 같아서, 바로 마음에서 그러하면 두뇌로 통신이 돼 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전체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만 안에서대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고장이 났을 때는 안에서 모자라는 것은 뭐든지 다 보급을 해서 채웁니다. 흐르면서도 모자란다면 채워 가면서 작용을 합니다. 또 바깥의 일들이 위태롭게 될 때는 바로 세포의 법계에서 의식들이 나가서 바로 마음과 마음속으로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모든 일들은, 일체만 법은 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한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정리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들이 그렇게 많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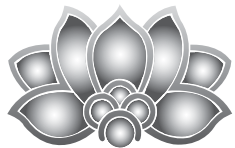
시 새로운, 즉 말하자면 유행되는 옷을 입고 다시 나오죠. 그런데 왜 그 구식의, 유행이 지난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게 떨어질까 봐, 그거 벗겨질까 봐 그냥 애써니까? 내 마음대로 유행하는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또 오래 살게 되는 거죠.

내가 길을 걷거나 절 안에 앉아 있거나 하더라도 한숨이 혹은 그냥 맥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개가 똑 떨어집니다. 내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먹고 안 먹고 또는 죽고 살고, 이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고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자기가 집합소가 돼 가지고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혼자 먹지도 않는 거를 혼자 먹는다고 하고 혼자 했다고 하고 혼자 산다고 하니 그렇게 어리석은 수가 있습니까? 혼자 먹었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너 혼자 먹었으니까 혼자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걸려도 누가 손 한 번 대 주지 않아요. 한마음으로 도와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까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경에 이르러도, 어떻게 죽게 돼도 손을 안 대 준단 말입니다. '너 혼자라고 만날 떠드는데, 내가 이렇게 만날 작용을 해 주고 이래도 너 혼자라고 그러는데 혼자 잘 해 보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조금도 예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남이 미워서 속에다가만 넣고 그냥 말로는 그런 대로 해 나가곤 있지만 속에다가 '조름 두고 보자' 하면요, 그쪽에서도 역시 '너 요즘 두고 보자!' 이렇게 한탄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풀이 아닌데 뭐, 예전에 물랐을 때의 내 모습과 같지. 풀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고 저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 밖에 없잖아.' 하고 거기가 말져 놓으면 그쪽에서도 역시 아름다운 마음으로써 외려 회개를 하고 "야후, 내가 전자에 자네한테 참 잘못했어. 참 미안해. 살다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 하고 마음이 아주 더 측은하고 참담하게 진실한 친구로서 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가족끼리도 그렇지 못하게끔 울그라블그라하고 야단들이나 어떻게 화목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9월 19일 광명선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보라!



이 움직여진다는 거를 알면 내면의 모든 일체가 다 내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걸 아실 겁니다. 내면에서 마음의 선장이 '이렇게 하자' 하면 전부 따라 줍니다. '좋게 하자' 하면 좋게 따라 주고, '도둑질하자' 하면 도둑질하는 대로 따라 주고, 이렇게도 따라 주고 저렇게도 따라 주는데 그 거를 왜 믿지를 못하고, 왜 거기다가 맡겨 놓으라는 데 진짜로 맡기질 못합니까? 모두가 자기 아닌 자기인데, 전체가 자기인데 자기 이름을 수효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포함해서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간장 공장에도 소임자가 있고 위장 공장에도 소임자가 있고, 몸속에 전부 소임을 맡아 가지고 제각기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속도 한 나라라고 친다면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바로 마음입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숨에 끌리지 말고 못한다 한데에 끌리지 말고 단호히 당당하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보야죠. 아니, 죽든지 살든지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요. 당신의 영혼의 근본이 떨어지면 당신도 송장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

## 단호히 당당하게

##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보라!



지 못하는 것은 자기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뚱이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많아서, 이름도 많고 의식도 많은데 많은 그 게 하나로 뭉쳐서 한마음으로 선장이 돼 있다는 사실이며, 그 뿌리가 바로 선장과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허왕지왕 허왕지왕 해 가지고 업적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자주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막습니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 것을 그렇게 애 탄단만 착이 겁니까? 지금 가다가 죽으면 어쩌며 지금 조금 덜 먹으면 어쩌며 더 먹으면 어쩌며, 더 살면 어떻게 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의 현상이 있다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세련된 옷을 꼭 입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더 세련된 옷이 생겼어요. 그게 새로이 유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벗고 그것을 좀 입어 봐야겠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와 같습니다. 죽으면 아주 죽는 게 아니고 사대가 출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금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다시 생각이 돼서 다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을 전 중도의 마음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 대표회장 **회암** (재단법인 미타종 총무원장)
- 부 회장 **현산** (대선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 산수** (대한불교 사암종 총무원장)
- 사무총장 **성일** (대한미타 조계종 총무원장)

이사

- 혜상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총무원장)
- 정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 도선 (생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 법광 (세계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 해명 (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 청원 (대한불교 불광종 총무원장)
- 향운 (세계불교 법사종 총무원장)
- 법달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 성우 (세계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 운공 (대한불교 흥재종 총무원장)
- 법우 (조계종 정토불교 총무원장)
- 청호 (대한불교 연화종 총무원장)
- 일원 (대한불교 법화여래종 총무원장)
- 탄공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 삼일 (대한불교 임제종 총무원장)
- 동선 (대한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 회범 (대한불교 선종 총무원장)
- 혜공 (대한불교 대승연화종 총무원장)
- 혜일 (대한불교 티룩선종 총무원장)

감사

- 기산 (한국불교 조계선종 종회의장)
- 응호 (한국불교 인왕종 총무원장)

■ 총무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12-39 진영빌딩 4층  
전화 02)3436-0796 / 팩스 02)2201-1163

# 중국 삼삼구 불기공 지도자 모집

- ◆ 대상 : 스님, 법사, 최면사, 심령 치료사 천지 대 우주와 대통하는 수련법 전수 중국 최고 소림 기공사

1. 빙의 퇴마 치유하는 기공법
2. 온, 냉기를 발사하고,
3. 기를 쏘아 부황을 뜨고,
4. 맨손의 기를 은 박자를 통해 불수 있으며,
5. 손에 은 박자를 붙여놓고 기를 쏘면 손이 뚫다.
6. 신문지를 이용해 기가 나가는 것을 불수 있으며,
7. 현재 10여명의 심리치료사 수련생들이 놀래고
8. 현재 수련하는 최면사들이 찬탄을 아끼지 않고
9. 현재 수련하는 빙의 치료 스님들이 감탄하는 신비의 기공 삼삼구 신비 불기공의 효력

※ 피부미용, 비만, 빙의, 귀신병, 정신병, 간질, 허약자, 정신산만자, 중풍초기환자, 초기치매자, 병명없이 아프신 분, 가슴 아프신분, 눈이 침침한분

## << 웰빙 최고 건강법 3개월과정 >>

- ◆ 오후반 : 13시 ~ 15시까지 주 2회 목,목요일
- ◆ 일요반 : 14시 ~ 18시까지 주 1회
- ◆ 저녁반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9시까지
- ※ 스님 퇴실분 행사모집, 사찰등록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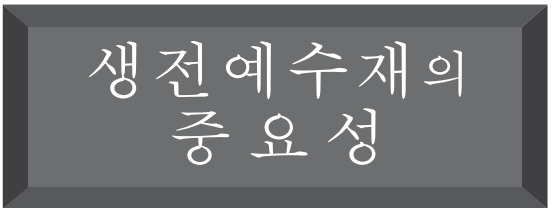
## 사단법인 대한 선행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설 : 삼삼구 불기공 총연합 본부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09-1(5호선 명일역 3번출구)  
02)3426-0533, 011-9092-0533

#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 무료 ]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생전에 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 법사

### 책자 안내

-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 의식처 조성의의.
-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팔대참회문.

##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